

김용관의 발명학회와 1930년대 과학운동 (6)



임종태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3) 과학과 발명

과학운동에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과학과 발명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한 두 집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김용관과 발명학회 간부, 그리고 발명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김창제, 현상운 등 문화운동을 주도하던 학자, 문인, 종교인, 기업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명사 집단이었다. 두 집단의 차이는 일단 표면상으로 한쪽은 발명, 다른 한쪽은 과학을 강조한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김용관, 이인 등의 글은 주로 '발명'의 진흥이 역사발전과 민족의 개생에 관건이 된다고 강조하거나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발명진흥의 방도를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사회명사들의 글은 '과학'이 근대사회의 각 분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과학이 조선사회의 근대화에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두 계열을 편의상 각각 '발명진흥론'과 '과학진흥론'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로 한다.

이 두 계열의 차이는 표면상의 강조점에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발명과 과학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에서 흥미있는 차이를 보여 주었다. 우선 '과학진흥론' 계열의 사람들은 발명을 과학의 힘이 나타나는 한 가지 예로서, 과학의 직접적 응용으로서 파악하였다. 과학은 기술, 종교, 일상생활, 산업 등 근대문명 전반의 기초인데, 발명은 과학이 적용되는 한 분야라는 것이다. 김창제와 윤치

목 차

- I. 서 론
- II. 발명진흥과 물산장려(김용관과 발명학회)
- III. 발명진흥에서 과학운동으로
- IV. 이화학연구기관 설립논의(상이한 과학기술관 및 근대화관의 표출)
- V. 과학운동의 전개와 변질
- VI. 요약과 결론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 및 다음호〉

형의 글은 이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하여 현금은 과학만능시대가 된 것이다. 최근 수십년간의 八大發明이라는 것은 다 과학의 所賜이다. ...그리하여 금일은 다시 과학으로써 사회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仙人未知의 域을 탐색하여 新知見을 發現하고 또 此를 吾人 類社會에 發明화식해서 대자연을 이용하여 吾人の 행복을 증진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구하는 자연과학이다.¹⁰³⁾

이들에게 발명이란 보편적인 적용력을 가진 과학의 한 요소이거나, 그 힘이 미치는 한 영역에 불과했던 것이다.

반면 '발명진흥론' 계열의 사람들은 발명과 과학을 상호작용하는 대등한 실체로서 파악하거나, 발명이 과학으로부터 다소간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용관은 "發明과 發見과의 關係"라는 글에서 과학기술사상의 여러가지 예를 들어 발명이 과학과 대등하게 상호작용하는 독립적 실체임을 예증하였다.¹⁰⁴⁾ 발명가 서주택은 발명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좀 더 체계적으로 발명의 독자성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발명에는 다년간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얻어지는 '추리적' 발명과 학리의 축적없이 사물에 착안하여 이루어지는 '주의적' 발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발명이 꼭 과학적 연구에 기반할 필요는 없었다. 후자의 경우는 "勤勉精進" 발명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따라서 모든 발명이 꼭 과학적 연구에 기반할 필요는 없었다. 후자의 경우에는 "勤勉精進과 不休

不退의 정신만 가지면 無常識과 貧弱"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¹⁰⁵⁾

따라서 두 계열이 훌륭한 발명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든 것도 서로 달랐다. 윤치형의 경우, '과학적 발명'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며 과학교육을 통해 이론적 소양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⁰⁶⁾ 그러나 발명진흥론자들은 과학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윤치형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김용관은 발명을 위해서는 과학 공부를 통해 사물의 원리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가 염두에 둔 과학지식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것이었다.

사물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고 썼지만 ... 「그것을 다 알 필요는 없고」 다만 그들 「사물」의 원칙이나 원리를 알고 있으면 조라. 가령 「에베르기」의 불변이란 것을 알고 잇스면 작은 힘으로써 큰 힘을 이리키려고 하는 등의 생각은 불가능임을 아는 것과 가리 사물의 원칙을 알고서 냉정히 생각하는 때는 불가능성을 발견하기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¹⁰⁷⁾

그에게 있어서 과학지식이란 특정한 발명의 가능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간단한 공식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김용관과 여타 발명가들은 좋은 발명을 위한 조건으로 과학지식 외의 다른 것들은 제시했고 어떤 점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 다른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주변

103) 金祿濟, 앞의 글(주60), 9; 尹治衡, 「科學朝鮮,發刊에 就하여」, 「科學朝鮮」, 1933년 6월호, 8.

104) 전자기파의 발견'이 우선통신의 '발명'을 낳고, 반대로 분광기의 '발명'의 원소의 '발견'에 기여하는 등의 예를 들고 있다. 김용관, '발명과 발견과의 관계', 「科學朝鮮」, 1933년 7·8월호, 36.

105) 서주택, "우리의 상당한 발명", 「科學朝鮮」, 1934년 1월호, 39.

106) 尹治衡, 앞의 글, 8, 12.

107) 김용관, '발명가의 필요사항 몇가지', 「科學朝鮮」, 1935년 3월호, 6.

사물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이었다.¹⁰⁸⁾ 발명진흥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생각한 발명의 정의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윤재현에 따르면 발명이란 "천연과 자연의 이용입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밟지도 안코 깨닫지 못한 것을 새 방법으로 개척하여 신방식의 구조를 궁구하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고안한 물품이 현재에 있는 것보다 더 실용가치가 유하면" 이것이 곧 발명이었다.¹⁰⁹⁾ 즉, 발명이란 주의 사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일상생활의 필요를 발견해 내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용관은 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상생활에 항상 주시하여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개조에 힘써 나아가면 거기에서 발명발견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명은 부역에도 있다. 마루와 방에도 있고 책상우에도 있고 찬장에도 있고 ...¹¹⁰⁾

이와 같이 일상생활과 같이 관련된 발명관은 과학진흥론상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발명관은 '과학의 보편성 및 중립성론'은 과학과 그 응용인 발명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고 어느 사회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중립적인 것이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 '근대 문명의 기초'로서 과학의 힘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이것을 소유한 나라는 근대 문명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현상윤 등에게 나타났던 서구 과학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그에 근거한 서구과학

수입론은 바로 이렇게 과학관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사실 중립적 과학관 및 발명관은 당시로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사조였고, 이는 김용관 등의 '발명진흥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들이 이러한 관점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발명을 이루는데 과학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건이라면, 아직 과학 수준이 일천한 조선에서 좋은 발명을 기대하기란 힘든 일이었다. 우선 서구의 보편적인 과학을 수용하는 것이 발명진흥을 위한 선결조건이 될 것이었다. 그런데 발명이 과학과는 어느 정도 독자적이며, 일상생활의 필요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이 발명의 중요한 조건이라면, 꼭 보편적 과학을 수입하지 않아도 좋은 발명이 가능했다. 조선 사람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면 꼭 어려운 과학을 이용하여 복잡하고 웅장한 것을 고안하지 않아도 좋은 발명이 될 수 있었다. 이를테면 발명학회 간부 정인관은, "미국 사람이 라디오 操縱水雷艇을 발명하였다는지 살인광선을 발명하였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그렇게 굉장한 일을 해야만 그것만이 대발명인 줄 알고 '아이고 우리야 발명을 어떻게 하나'하고 자포자기 하는 것은 愚의 所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¹¹¹⁾ 나아가 발명가 서주택은 조선의 실정에 '적당한' 발명 진흥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선에서 아니치 못할 발명에 있어서 엇더한 발명이 적당한가 간단히 말씀하자면 창조적 발명보담도 현실성이 풍부한 발명. 쉬우게 말씀하자면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 우리의 적당한 발명은 항공기 기리의 특수한 종류는 우연적으로 그 요지를 발견

108) 같은 글, 4-5.

109) 윤재현, '발명의 무한', 『科學朝鮮』, 1933년 6월호 16.

110) 김용관, '발명의 특허받는 법(1)', 『東亞日報』, 1934년 12월 1일.

111) 정인관, '발명은 어려운 것인가? 發明縱橫觀(二)', 『동아일보』, 1934년 11월 9일.

함은 예외로 하고 安全萬能兼用轉便 등의 문자가 붙은 실용적 발명이 되어 속히 성공의 도상에 오를 것입니다.¹¹²⁾

이들의 주장은 곧, 무조건 서구의 발명 추세를 따를 것이 아니라 조선의 실정에 적합한 발명, 즉 비교적 간단하고 실용적인 일상용품의 발명에 집중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일단 당시 발명가들의 지적수준을 고려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김병하는 당시 발명가의 90%가 소학교 졸업자라고 주장하였는데, 그리 과장은 아니었을 것이다.¹¹³⁾ 1935년 탁주여과기로 실용신안을 받은 이덕균이라는 발명가가 그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그는 「新東亞」에 발표한 수기에서, “저는 시골 무명농촌에 출생하여서 현대문명이 무엇인지 ... 과학이라는 명자도 드러보지 못하였으며 발명이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런데 그는 양조장을 다니면서 술 거르는 작업이 비능률적임을 간파하고 “마찰과 압착”의 간단한 원리를 이용하여 탁주여과기를 고안했던 것이다.¹¹⁴⁾ 김용관, 정인관 등이 장려하고 육성하려 했던 발명가 및 발명은 바로 이러한 종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 가운데는 현실적 불가피성에 대한 소극적 고려에 머물지 않은 어떤 적극성, 즉 일용품의 자작자급을 통해 자주적 공업화를 이루려는 전략이 담겨 있었다. 발명가들에 의해 고안된 일상생활용품을 실제 소규모 공장생산의 방식을 통해 산업화시킴으로써 이 땅에 범람하는

외국상품에 대항하고 자작자급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간단한 일상용품의 발명은 곧 물산장려회의 민족주의 좌파가 견지한 ‘소규모’ 공업 진흥론과 연결되고 있었다. 한마디로 김용관을 비롯한 발명학회 간부들은 아직 저급한 수준에 머물고 있던 발명가 집단과 역시 유치한 그들의 발명품에서 민족 공업화의 희망을 찾았던 것이다.¹¹⁵⁾

결론적으로 사회명사들의 ‘과학진흥론’과 발명학회 간부들과 발명가들이 견지한 ‘발명진흥론’의 차이는 단지 진흥하려는 대상이 다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전자의 부류가 ‘과학의 보편성과 중립성’이라는 인식을 넘어서지 못한 채 ‘보편적’인 서구 과학의 ‘수용’만을 생각하였다면, 발명진흥론자들은 조선의 상황에 적합한 ‘특정’ 과학기술의 ‘생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발명진흥론자들이 과학이 중립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이념을 극복할 만한 세련된 과학기술론을 가져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발명이 과학과는 어느 정도 독자적이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라는, 다소간 단순한 통찰을 발전시켰을 뿐이었다. 이러한 생각이 가능했던 것은 아마도 그들이 취약한 발명가 집단 및 민족 공업의 현실에 좀 더 가까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좀 더 실제적인 방법을 모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 외세의존적 근대화론 - 이화학연구기관 불필요론

김용관의 경성고공 후배로서 과학운동에 참여

112) 서주택, 앞의 글, 39.

113) 김병하, “과학관의 필요”, 『동아일보』 1938년 4월 19일

114) “신진발명가들의 고심담”, 『신동아』 1936년 1월호, 42-43.

115) 실제로 발명학회 자체가 직접 조선인 발명가들의 발명품을 실제 공업화 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1935년 8월 31일의 발명학회 이사회에서, 발명학회 회원 全興元이 고안한 ‘개량온돌’의 상품화를 적극 후원하기로 결의하였다. 『科學朝鮮』 1935년 11월호, 28.

하고 있던 윤주복은 김용관의 노력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조선 민족 독자의 발명진흥 사업이나 이화학연구원 설립 사업 자체가 낭비이며 따라서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일본이나 서구에서 이루어진 과학이나 발명의 성과를 이용하고, 독자적으로 민간연구기관을 세우기보다는 중앙시험소와 같이 일본인 측이 새운 기관들을 이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냉소적 태도의 바탕에도 다른 사회명사들과 동일한 과학의 보편성론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요사이 신문지상으로 발명 발명하고 굉장히 보도되는 일이 만치만은, 나는 이리케 생각한다. 발명을 장려도 하기는 하겠지 만은 임이 남들이 해노는 발명이라도 잘 이용해야 우선 그것을 공업화하는데 착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얼마 전에 과학조선사 주최로 열렸든 발명좌담회에서 이화학연구원 설치여부에 대하여 토론한 일이 있었지만은 나는 그리케 필요를 인지 안는다. 왜 그러나하면 자연과학에는 국경이 없고 민족의 차별이 업슬줄 안다. 경성에도 중앙시험소가 잇으나 그리케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도모지 업다. ... 그럼으로 그런 기관을 만들만한 돈이 잇다면 차라리 수재를 양성하는 것이 得策이겠고 그 양성된 수재로 하야곰 우리 기관이 아니라 허더래도 해외기관에 끼워서 일하는 것이 부당할 것은 무엇인가¹¹⁶⁾

이해 비해 김용관은 산업의 자립을 위해서는 과학 기술의 독자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직접 윤주복의 글을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1936년 「과학조선」에 실린 그의 글은 바로 앞의 인용문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과학의 연구는 전혀 他族에만 갓기고 그 성과만을 조선에 이식하야외지는 주장임 ... 目前에 경제적 타산에 몰두하고 민족

적 조건을 이즌 분의 말이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고 말한 과학계의 대 위인 파스퇴르파스퇴르를 생각치 아니할 수가 없다. ... 우리 반도에는 반도의 특수사정이 존재하므로 최근에 발명된 고상한 공업을 이식하기에는 상당한 노력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특수사정이라 함은 자연에 與하는 조건 뿐 아니라 경제적 조건이 또한 중요한 바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여기에서 과학발달의 급무가 제창되고 산업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바이다.¹¹⁷⁾

즉, 조선에는 그 나름의 특수사정이 있으므로 타민족의 수준 높은 과학기술과 그것을 응용한 공업을 그대로 이식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산업의 독립을 위해서는 조선 나름의 독자적인 과학기술의 발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1920년대 이래 발명학회, 물산장려회 등 민족주의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김용관과는 달리 윤주복은 일본의 과학기술체제, 산업체제에 편입된 길을 걸어온 인물이었다. 그는 1923년 경성고공 방직과를 졸업하고 일본 九州帝國大學에서 응용화학을 전공한 후 당시 세계대공황으로 취업이 어렵던 상황임에도 경성고공과 대학시절 은사의 도움으로 총독부 중앙시험소의 기수에 취직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곧 공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과학운동 당시에는 경성방직의 공장장직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¹¹⁸⁾ 특히 윤주복이 활동했던 경성방직은 비록 조선인 자본의 기업이었지만, 1923년 이래로 계속 총독부의 보조금을 받는 등 당국의 '보호' 아래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어떤 점에서 경성방직은,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던 대다수 중소기업과는 달리 일본의 경제체제에 편입된 기업이었다고 볼 수

116) 尹柱福, 「공업기업가의 분기를 待한다」, 『科學朝鮮』 1934년 1월호, 3.

117) 김용관, 「과학과 其연구」, 『과학조선』 1936년 1월호, 8.

118) 윤주복의 경력에 대해서는 안동혁, 「殘像」(한양대학교산업과학연구소, 1978), 495-497을 참조할 것.

있다.¹¹⁹⁾ 이러한 여건에서 활동해 온 그가 독자적인 발명진흥과 연구기관 설립을 주장해야 할 절실한 이유는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그에게는 일본 본토의 연구기관이나 경성의 중앙시험소만으로도 충분했으며, 조선인이 독자적으로 민간기관을 세워 봐야 이들보다 나은 시설을 갖추기는 힘들고 오히려 자금과 노력의 낭비일 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진흥론의 차이는 민족 공업화의 전략, 또는 1930년대 당시 진행되고 있던 '조선공업화'를 파악하는 관점의 차이와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930년대 초반 신임 총독 宇垣一成이 조선을 일본과 만주를 잇는 공업지대로 육성할 것을 표방한 뒤, 이를 계기로 조선에 공업화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화학, 방직공업을 중심으로 일본의 독점자본들이 진출하기 시작하여, 이른바 일본독점자본 주도의 '조선공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윤주복이 이러한 조선공업화 현상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그의 과학기술진흥론으로 미루어 일본 독점자본 주도의 산업화에 대해서도 그리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과학운동에 참여한 인물 중 윤주복과 매우 친밀했던 동료요, 비슷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던 안동혁의 관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¹²⁰⁾ 그가 '조선공업화'를 파악하는 관점은 「신

동아」 1935년 6월호에 실린 글에 잘 나타났다.

최근 조선공업계의 활황은 「인플레이션」정책과 만주사변을 전기로 전개된 것으로 현재 중요한 대공업은 거의 그 전부가 일본 대재벌의 진출 건설한 것이다. ... 여하간 조선공업계의 장래는 일반적으로 보면 매우 유망하다. ... 자동적이던 타동적이던 공업화하는 것은 민중 전체의 문화진전상 또한 경제생활상 환영할 일이다.¹²¹⁾

즉, 그는 당시의 공업화가 일본 독점자본의 주도로 진행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것이 조선인의 문화발전과 경제생활에 결과적으로는 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에게 공업화란 “문명번영의 기초이며吾人の 유일한 활로”로서, 그것을 꼭 조선인 자신이 이를 필요는 없었다. 일본인들에 의한 공업화라고 하더라도 문명화의 효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신동아」 같은 호에 실린 김용관의 글은 '조선공업화' 현상을 부정적으로 파악하여 안동혁과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공업화의 진전으로 “무역의 호전”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공업 원료의 공급지일 뿐, 일반공업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을 극복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물론 김용관 역시 안동혁과 마찬가지로 “공업의 발전정도가 該국가사회의 문명정도를 헤아리는 척도”라고 주장하여 공업화의 일반적인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모든 공업화가 다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김용관이 보기에 당시의 '조선공

119) 경성방직에 대한 총독부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권태익, 「한국근대면업사연구」(일조각, 1989), 266-267을 참조할 것. 윤주복은 경성방직의 공장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일본의 만주진출로 인해 주어진 사업확장의 기회를 이용하여 “경방공장확장, 북경에서의 사업왕국수립”을 정열적으로 주도하였다고 한다 : 안동혁, 앞의 책, 497.

120) 안동혁은 윤주복보다 3년 늦은 1926년 경성고공 응용화학과를 졸업하여, 윤주복과 함께 九州帝大에서 응용화학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경성고공 교장이 윤주복을 중앙시험소에 추천할 때 그도 공업전습소의 후신인 경성공업학교의 강사 자리를 얻게 되었다. 그는 이후 1931년 모교인 경성고공의 교수, 1937년 중앙시험소화학공업부장 등 조선인으로서의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화려한 직책을 가지게 되어 당시 공업기술계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부상하게 되었다 : 안동혁, 앞의 책, 605-612.

121) 안동혁, “공업조선의 畵貌”, 「신동아」 1935년 6월호, 33.

업화'는 단지 일본제국의 영토의 하나인 조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조선 '민족'의 공업화는 아니었다. 그것이 진행되면 될수록 조선의 산업은 일본 독점자본에 장악되어 가고, 그 결과 조선인은 이들이 만든 상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민족 자체는 점점 궁핍해질 따름이었다.¹²²⁾

안동혁과 윤주복의 외세의존적 과학기술진흥론 및 근대화론은, 1923년 물산장려운동 당시 동아일보-경성방직 계열이 견지했던 산업진흥론 및 근대화론의 역사적 귀결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그 당시 경성방직과 같은 대규모 조선인 자본을 육성하여 자본주의 문명을 건설하자고 민중에게 호소한 바 있었지만, 1923년 하반기 총독부의 보조금 지급을 계기로 하여 '공정회 조선지부', '조선공업협회', '경성상공업의소' 등 일본인 주도의 상공업 체제에 점차 편입되어 갔다.¹²³⁾

이제 일본자본주의 체제 내에 편입된 이들에게 조선의 자본주의 건설이 꼭 조선인만의 힘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는 절실함은 없었을 것이다. 1930년대의 공업화는 비록 일본인들의 주도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근대자본주의의 도래로 보였고, 적어도 그들은 그 흐름에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다.

윤주복과 안동혁은 과학운동 내에서 바로 이러한 계열의 입장을 대변한 인물이었다. 그들의 경력, 즉 그들의 경성방직, 중앙시험소에서 한 일은 바로 몇몇 조선인 대규모 기업과 일본독점자본에 의해 주도된 조선공업화에 기술 발명에서 봉사하는 일이었다. 반면, 물산장려운동의 가내공업, 소규모공업 진흥론의 뒤를 잇고 있던 김용관은 여전히 일본의 과학기술 및 공업체제에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업화를 주장하였다. 윤주복 및 안동혁과 김용관 사이에 나타난 입장의 차이는 바로 1923년 물산장려운동 내부의 입장분화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간에서 재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발특9704

발명장려관 휴관안내

발명을 장려하고 우수발명의 상설전시를 통한 발명진흥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회가 운영중인 발명장려관이 입주해 있는 KOEX 별관 건물이 2002년에 개최될 ASEM(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의 개최지로 결정됨에 따라 철거하게 되어 발명장려관이 조기 이전하게 됨에 따라 '96년 12월말로 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원하여 주신 발명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변모된 발명장려관에서 '97년 상반기중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122) 김용관, 앞의 글(주89) 43-45.

123) 경성방직의 인물로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한 인물은 김계수, 이강현(이상 조선공업협회), 윤주복(공정회 조선지부) 등이었는데, 이중 이강현과 윤주복은 모두 과학지식보급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이었다.